

# 사막의 불꽃은 지속된다.



곽수정

한미기초개발(주) 대표이사  
gsj2060@chollian.net

중동하면 떠오르는 하나는 모래사막에 오일머니를 연상한다. 그러나 요즘은 경기침체로 두바이의 붕괴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두바이공항에서 아브다비로 향하는 시내고속도로를 가로지르다 보면 야간조명등이 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두바이의 트레드마크라 할 수 있는 화려한 조명과 하늘을 찌르는 고층건물의 스카이라인이라 할 수 있는 대형건물에 조명이 사라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바라보는 두바이 시내의 사막위에 그려진 천지개벽의 야경은 별천지였다. 지금은 화려한 불빛보다는 오히려 차분한 분위기를 가져다준다.

최근 세계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두바이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년과 비교해서 두바이의 경기가 반 토막이라는 말이 현실인 것 같다. 유동성 위기의 결과는 두바이의 대형개발회사인 나킬(Nakheel), 아마르 등에서 추진중인 세계최고층빌딩 '버즈두바이'와 팜 아일랜드의 인공섬 건설이 중단되거나 준공이 지연되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비자연장을 못한 노동자들이 하나 둘씩 두바이를 떠나면서 팔지 못한 차량이 공항주변에 버려지고 있다. 중동국가

를 들어가는 관문이자 인프라 시설이 가장 잘된 두바이 신화가 무너져가는 현실을 바라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두바이의 심각성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두바이에 일자리가 부족하다보니 인력이 아브다비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치안까지 불안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그냥 지나칠 일을 통제하다보니 외국인 경제사범과 범법자가 2배가량 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중동국가 중에서는 가장 개방적인 두바이가 변하게 된 원인은 세계의 경제한파 때문이다. 돈이 집중되는 곳에서 가장 먼저 경제위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최근 유가가 오르면서 주춤했던 중동지역 플랜트건설 발주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사우디를 중심으로 아브다비,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및 그 외 GGC(걸프만협력회의) 국가들이 금년 하반기에 토목공사를 대량으로 발주하거나 발주 준비 중에 있다. 금년은 우리나라 대형건설회사들의 건설 수주량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으로는 제2의 중동 불모로 이야기하는 흑자도 있다.

대부분의 중동국가들은 석유와 액화천연가스를 퍼 올려서 자원을 만드는 국가들이다. 중동에서는 1970년대

중반 정유 및 석유기공 공장의 건설을 기초로 경제부흥이 시작되었다. 석유화학제품, 비료, 압연강철 등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건설되면서 중동의 플랜트산업이 발달되었다. 요즘은 플랜트공장을 건설하면서 필요한 자재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공장들이 신설되고 있다. 전기뿐만 아니라 철강제품, 담수시설, 레미콘공장, 공산품제조 공장들이 속속 건설되고 있다.

중동국가의 고용 인력은 삼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노동인력의 대부분은 인접국가인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등 여러 민족들이 고용되어 있다. 특히, 인도인들은 중동의 상권을 움직이고 있으며 주요 업무의 대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동은 세계 원유매장량의 61.5%, 천연가스 매장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자원의 보고다. 최근 세계적 에너지자원 가격 급등으로 엄청난 오일머니를 벌어들인 중동국가들이 그동안 석유산업에 편중됐던 산업구조를 바꾸고 있다. GCC 국가들의 투자액은 1조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자범위는 석유 및 가스, 건설, 석유화학, 일반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중에서 투자 규모가 가장 많은 분야는 건설분야로 약 50%를 넘고 있다. 오일머니가 에너지집약형산업, 석유개발, 산업인프라 등 산업화자본으로 쓰이고 있다.

건설 기술자들은 오일머니를 활용하고 중동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중동 플랜트 시장과 SOC개발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중동지역에서 지반전문가는 우수한 기술력으로 엔지니어링, 건설, 인프라설계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설계회사들이 중동국가의 신도시 설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건설에 이어 설계분야도 무궁무진한 경제적 보고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내설계업체에서 UAE국가인 아부다비에서 신도시설계용역으로 약 800억 이상의 설계용역을 수주했다. 설계뿐만 아니라 신도시 건설에 건축전문건설업체들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참여를 하고 있으며 중동국가에

진출해서 상주하는 설계업체들도 상상수다.

플랜트산업은 중동지역에서 오랜 경험과 한국인의 독특한 특성(근면성, 신속성, 신뢰성) 때문에 각국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작년도 한국건설업체에서 수주규모는 중동국가 물량의 약 33% 정도를 수주하였으며 그 규모는 약 100억불에 이르고 있다. 한국 업체들의 경쟁력은 복잡한 플랜트공사를 이끄는 능력과 공기 내에 공사를 완공한 나라는 한국이라는 인식이 큰 장점일 수도 있고, 고객에 대한 존중이 남다른 점을 꼽는다.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선진 국가들도 공사에 6개월씩 지연되거나 납기를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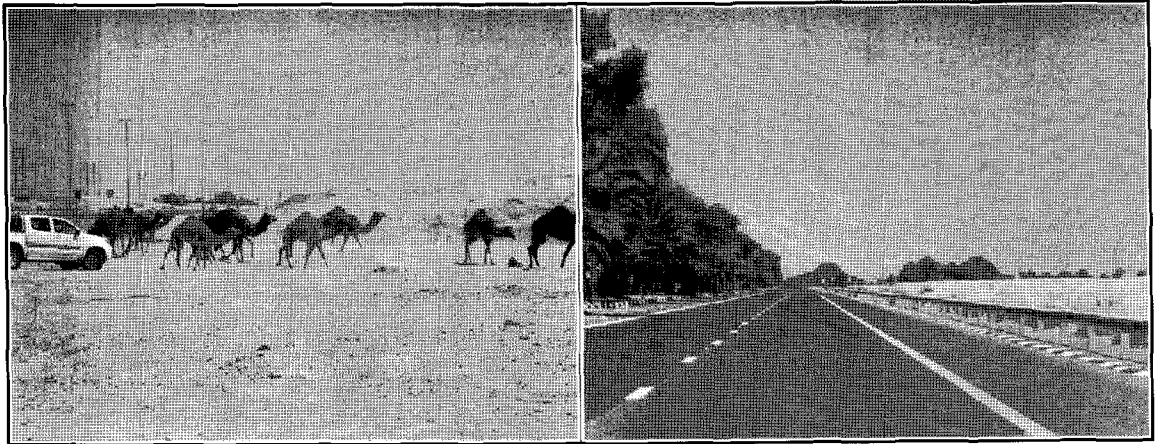
2009년도 국내건설업체들의 플랜트산업의 수주현황은 알제리 석유플랜트, 사우디 정유플랜트, 카타르 비료공장, UAE 발전 및 담수설비, 루와이스 가스설비 등 많은 수주를 하였거나 준비 중인 프로젝트가 많다. 장기적으로는 한국기업들이 수주 가능한 발주물량은 약 200억불에서 300억불로 예상하고 있다. 플랜트산업기술은 검증된 실적경험이 필요하므로 중동국가에서 경험이 많은 한국기업들의 수주전망은 아주 희망적이다.

한국건설회사는 고급엔지니어링 기술이 필요한 인적자본이 풍부한 편이다. 복합공정 플랜트산업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팀워크 중심의 공동협력으로 이루어내는 기술이므로 한국인에게 적합한 형태의 산업이다. 많은 건설인들은 중동건설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진행현황과 국내업체의 수주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70년대 시설된 기존 플랜트 시설이 노후화돼 교체 수요가 대폭 늘고 있으며 유가 상승이 가속페달 구실을 하면서 플랜트는 물론 토목 건축 분야에서의 신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더욱 긍정적인 측면은 중동 지역에서 한국 업체의 신뢰가 두터워 공기를 잘 지켜서 좋아한다고 말한다. 중동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많은 기술자들의 노력이라고 본다. 중소기업도 중동진출에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국내 건설경기는 환경적인 요인과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성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건설물량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나 성장이 멈추다 보면 발주물량이 불규칙하게 발주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가중된다. 건설환경은 갈수록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4대강을 비롯하여 국토개발 등 건설재원은 많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증가 보다는 감소요인이 많다고 본다. 건설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해외건설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유가가 오르면서 중동경기가 살아나고 발주물량이 증가하면서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수주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마침 국내 주택시장에서 미분양사태 등으로 활로를 찾기 어려웠던 국내 업체들로서는 다행인 셈이다. 국내시장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시장을 다변화해서 지구촌 어디에서나 성장동력을 찾는 것만이 건설인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중동경기가 살아나는 이시기에 지반분야 전문가들은 지구촌 개발에 더 많은 역할을 할 때다.



두바이 근교